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안 성 수

目 次

1. 서 론
2. 욕망 분석의 두 길
3. 소설의 갈등 논리
4. 욕망과 갈등 분석법
5. 결 론

1. 서론

모든 인간은 욕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목표가 달성 되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좌절되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갈등과 불행을 느낀다.

작중인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작중인물의 욕망은 쉽사리 달성되지 않고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이 곧 서사구조의 핵심을 이룬다.

작중인물의 욕망 연구는 전형적 성격이나 개성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전통소설론의 인물 연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통소설론의 인물 연구가 작중인물의 특징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몰두했다면, 현대소설론의 인물연구는 작중인물의 삶을 텍스트의 전체 구조 속에서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욕망구조나 행위기능¹⁾의 탐구 쪽으

* 제주대 교수

1) A.J.그레마스가 서사체 속에서 세 쌍의 인물들이 벌이는 6개의 행위소 기능을 유형화하고자 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로 기울고 있다.

게다가, 작중인물의 삶의 진실성과 총체성²⁾은 어떤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성격에 의해 탐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중인물의 총체성은 소설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전개되는 구체적인 다양한 인간관계의 실상 속에서 구현되고 완성된다.

작중인물의 욕망 대상(목표)은 주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건과 행동을 이끄는 서사적 지향점이며, 나아가 문학적 상징과 의미를 낳게 하는 욕망의 지표가 된다. 그러한 욕망을 이끌고 조절하는 미적 통제자는 외적으로는 텍스트의 플롯을 조직한 작가의 창작의도라고 볼 수 있지만, 작품 내적으로는 플롯의 기능작용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텍스트 구조 자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작중인물의 욕망 연구는 플롯의 미적 조절작용과 기능을 해명하는 필연적인 한 과정과 방법도 된다.

작중인물의 욕망 연구는 소설의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인물이, 누구와 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지를 탐구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작중인물의 욕망분석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학자이다. '주체→중개자→대상'으로 도형화되는 그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은 소설의 구조와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상동성을 밝혀 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이 이론은 사회구조를 반영시켜 창조한 소설구조가 그 작품을 낳게 한 사회구조와 상동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를 증명해 낸다.

그러나 이 이론은 욕망의 간접화 속에서 주체와 중개자가 간접적 모방의 대상이 되거나 방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성립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욕망도식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주체가 중개자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모방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적 한계가 따른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작품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에 필자는 그러한 적용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욕망분석 방법을 고려하고자 한다. 욕망의 중개자를 주체의 간접모방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체를 도와 욕망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협조자로 설정하여 적용상의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욕망 탐구 방식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

2) 여기서의 총체성이란 루카치의 총체성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한 작품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작중인물이 보여준 삶의 총량을 가리킨다.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든 작중 인물의 욕망탐색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한 비이념적 욕망탐구의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욕망탐구는 갈등의 상황과 무관하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작중인물의 욕망 추구행위는 반드시 갈등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전개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욕망 이론과 갈등 이론을 각각 살펴보고 나서 그 통합 논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 뒤, 욕망과 갈등을 묶어서 하나의 유기적 통합 체계로 연구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행위는 각각 분리시켜 탐구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 관계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통합적 작용 원리와 분석 방법을 실증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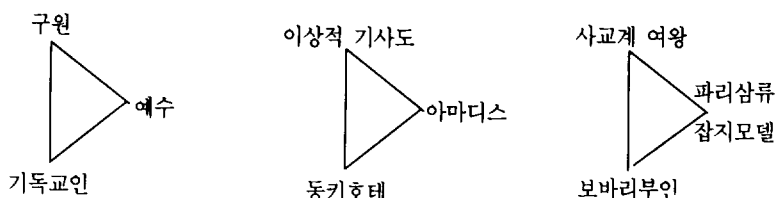
2. 욕망 분석의 두 길

1) 지라르의 욕망 분석법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은 소설의 욕망 분석을 위한 전형적인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논문에서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의 욕망분석을 통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해명해 내고 있다.³⁾

그의 '욕망의 삼각형'은 주체(s)와 중개자(m), 그리고 대상(o)을 세 꼭지점으로 하여 이등변 삼각형을 세워놓은 구조를 보여준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은 예수를 중개자로 설정하고 그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동키호테』의 주인공은 전설 속의 기사인 아마디스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이상적인 기사도가 되려는 욕망을 간접적으로 꿈꾼다. 또,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에서도 주인공은 파리의 3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사교계의 여왕이 되려는 욕망을 간접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3) 르네 지라르, 『小説의 理論』, 金允植역(서울·삼영사, 1979) : 이 책의 1장 속에 방법론이 들어 있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분석도>

이처럼, 인간은 이상적인 욕망을 직접 추구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대상을 닮은 중개자를 찾아 그의 행동을 모방하는 식으로 욕망을 달성하고자 한다. 지라르는 이러한 욕망의 간접화 현상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의 인간적 욕망의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라르의 욕망도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불행한 인간의 구조적 존재상황을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 대상을 자발적으로 직접 찾아내지도 못하고, 중개자를 통하여 암시되고 감지된 욕망을 간접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비극성을 만들어낸 주인인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주장한다. 인간을 진정한 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를 통해서 평가해 온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불행이 싹튼 것이라고 말한다.

작품분석의 차원에서, 욕망의 삼각형은 작중인물의 수만큼 그려낼 수 있어서 소설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주체와 중개자의 관계는 항상 모방자의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중개자가 주체의 방해자로 등장하여 경쟁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 이때, 주체와 중개자가 경쟁관계에 있으면 내면적 간접화, 경쟁관계가 없으면 외면적 간접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소설을 분석하려고 할 때,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삼각형의 욕망 도식이 본디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해명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체와 중개자가 모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적절한 욕망구조를 보여주는 소설이 별로 많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적용의 한계성은 특히 한국의 순수소설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한계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필자는 중개자의 개념 폭을 넓혀서 다음과 같이 비이념적인 삼각형의 욕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망체계로 재구성하려고 한다.

2) 비이념적 욕망 분석법

일반적으로,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신의 욕망 목표를 직접적으로 손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욕망 목표가 갈등 없이 쉽사리 달성되면 소설의 핵심과정인 예술적 대립과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고뇌하고 투쟁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벌인 대립과 투쟁의 결과는 대개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러 욕망의 달성이나 실패, 혹은 새로운 문제 제기 등의 형태로 독자에게 제공된다.

모든 인물은 그 나름의 독특한 욕망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중개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욕망을 직접 추구하거나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인물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개자의 존재가 반드시 주체의 모방자일 필요는 없다. 지라르의 욕망도식과는 달리 비이념적인 순수한 욕망 분석체계가 필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히려 중개자를 주체의 간접적 모방자로 한정시키지 말고, 주체의 욕망 추구행위를 도와주는 순수 협조자로 설정할 경우 모든 소설의 욕망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므로 새로운 중개자(협조자)의 개념을 받아들일 경우, 소설 속에는 인물을 포함한 라이트 모티브, 사건, 행위, 꿈 등 비교적 다양한 중개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물의 욕망구조도는 이등변 삼각형을 세워놓은 형태로 도형화할 수 있다. 아래 꼭지점에 욕망의 주체를 놓고, 위 꼭지점에 욕망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가운데 꼭지점에 중개자(혹은 중재자)를 위치시키면 여기까지는 지라르의 삼각형 욕망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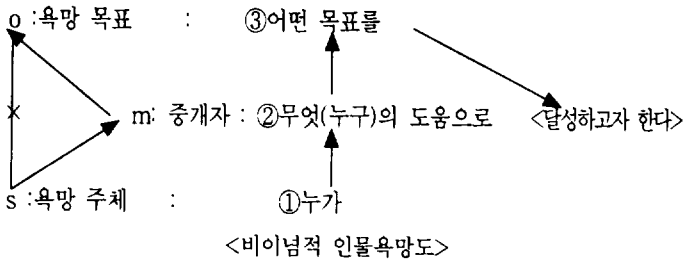
그러나 이 욕망도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개자의 설정방식에서 지라르의 도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도식에서 중재자는 지라르의 이론처럼 주체의 간접적 모방대상이나 주체의 경쟁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주체의 욕망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순수한 협조자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욕망 주체와 욕망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라르의 도식과 차이가 없지만, 중재자의 기능과 설정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라르의 이론이 주체의 간접화된 욕망 해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비이념적 욕망도식은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별다른 모방관계나 경쟁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작중인물의 욕망 추구에 도움을 주는 순수한 중개자와 협조자의

기능과 역할을 이용하여 욕망체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중개자의 이념적인 기능 경계선을 해체시켜 도형화하면 작중인물의 순수한 욕망구조를 자유롭게 포착해 낼 수 있다. 여기서 중개자는 주체가 자신의 욕망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에 이르게 한 어떤 인물이나, 사건, 라이트 모티프, 심리적 계기, 동기, 혹은 이미지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⁴⁾

따라서, 중개자는 주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에 이르도록 도와준 협조자가 됨으로써 지라르가 주장한 간접적인 모방의 대상까지도 내포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이것을 도형화하기 위해 정리하면, 욕망의 삼각형이 표상하게 되는 의미구조의 형태는 <①누가→ ②무엇의 도움으로→ ③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욕망의 달성이나 실패, 또는 진행중인 욕망 추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①은 욕망 주체, ②는 욕망 중개자, ③은 욕망 대상(목표)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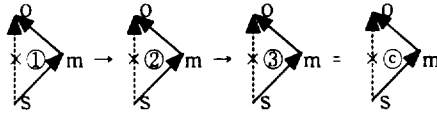
그러나 주체가 욕망 추구에 실패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는 중개자가 반대자의 기능을 수행했거나 중개자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욕망 실현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욕망과 갈등을 한 자리에서 유기적으로 고려하는 욕망과 갈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중인물의 욕망을 도형화하기 시작하면, 욕망구조도는 작중인물의 욕망과 행동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그려낼 수 있다. 그들을 따라 욕망구조를 읽어

4) 바로 이 점에서도 르네 지라르의 중개자 개념과 구별된다. 그의 중개자는 반드시 주체가 모방하거나 경쟁을 벌이는 인물로만 설정하는 데 비해 필자는 중개자의 기능을 반드시 인물에 게만 맡기지 않고, 주체의 욕망행위를 도와주는 모든 모티프나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내려 가다가 서사적 활동이 정지되거나 완료되는 결말 부분에 이르면, 욕망도식은 지금까지 파악한 하위 욕망구조들을 수렴시켜 종합한 거대 욕망구조로 묶을 수 있다. 아래에서 그림 ①, ②, ③은 시퀀스 단위별로 하위 욕망구조를 추출하여 도형화한 것이고, 그림 ④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욕망구조도로 그려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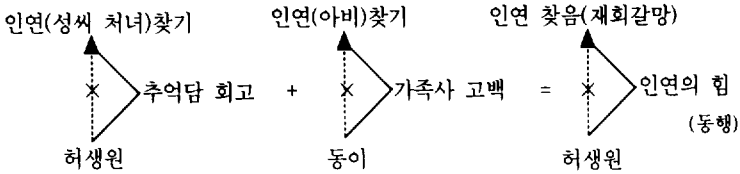
따라서 욕망도식은 작중인물의 수만큼,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순간까지 욕망추구의 양상만큼 다양하게 추적하여 그려낼 수 있어서, 작중인물의 욕망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비이념적인 작중인물의 욕망연구는 허구적 공간 속에서 거주하는 작중인물의 삶을 총체적으로, 혹은 전인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삼각형의 욕망체계는 작중인물이 소설의 시공 속에 살면서 추구하는 숨은 욕망의 실상을 거의 빠짐없이 그려낼 수 있어서 주체의 파악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독자들이 소설의 전개순서를 따라가면서 작중인물의 욕망의 흐름을 추적하면 총체적인 갈등구조의 진상과 주체가 수렴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욕망체계가 지라르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욕망의 목표를 현실 속에서 달성 불가능한 이상적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매 단계마다 작중인물이 설정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나 욕망의 대상으로 잡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개자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삶(욕망)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자로서 사건이나 인물, 행동, 라이트 모티프, 동기, 이미지 등까지도 광범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비이념적 욕망 탐구방식의 실용성은 소설이 시작되어 끝나는 순간까지 인물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욕망행위의 전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허생원과 동이가 봉평장날 밤길을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발견되는 욕망구조를 그림으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이 욕망도는 주체인 허생원이 동행자인 조선달과 동이에게 추억담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20여 년 전에 하룻밤 풋사랑을 나눈 성가네 처녀를 찾고자 하는 인연찾기의 욕망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동이 또한 자신과 어머니에 얽힌 비극적인 가족사를 허생원에게 고백함으로써 어머니와 자신의 욕망이 함께 투사된 아버지 찾기의 욕망구조를 보여준다. 그 결과, 이 소설의 주체인 허생원은 그 날밤 동이와의 운명적인 동행을 통해서 인연찾기에 성공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작중인물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욕망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욕망 분석의 한계

르네 지라르의 욕망 분석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간접화된 욕망구조를 설명 하는데 탁월한 기능성을 보인다. 필자가 제시한 비이념적 욕망분석법은 비교적 모든 소설에 이념적 전제조건 없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개방성이 장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나름대로 소설구조 속에서 작중인물의 욕망화의 실상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욕망 분석방법은 분명 성격 유형이나 전형성(혹은 개성) 중심의 기존의 작중인물 연구가 안고 있는 방법상의 한계를 넓힌 것으로 생각된다. 욕망 연구는 기존의 인물 연구에 비해, 작중인물이 소설의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욕망대상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는 가를 유기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역동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 연구 방식에도 한계성을 보인다. 이들은 작중인물의 욕망추구 행위를 총체적 삶의 구현과정을 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의 유기적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욕망과 갈등의 역동적 상호 작용을 놓치고 있다고 보아진다. 바람직한 욕망탐구는 갈등과의 유기적 상호작용의 고려 없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욕망과 갈등의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제기된다. 이를 위해 우선 갈등의 논리와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소설의 갈등 논리

인간의 길이 근본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영원한 갈등 속에서 대립하며 살아가야 할 숙명의 길이듯이 작중인물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대소설에서 갈등 연구는 인물 상호간의 관계와 성격, 행동을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갈등의 동기와 전개 과정은 소설구조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소설은 고유한 갈등구조를 통해서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설은 갈등관계의 서술 양식”⁵⁾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갈등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문명사적으로는 산업사회의 출범 이후⁶⁾, 문예사조적으로는 리얼리즘의 발생 이후 인간의 욕망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현상 속에서 심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리얼리즘의 반영론, 사회학, 발생구조주의, 문학사회학, 정신분석학, 경영학 등이 발전하면서 갈등 문제는 그들의 이론에 힘입어 체계화 되기 시작한다.

갈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심리학적 차원, 사회학적 차원, 경영학적 차원, 정치·행정학적 차원, 인류학적 차원과 문학적 차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갈등은 상반되거나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충동, 욕구 또는 경향성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⁷⁾ 심리적 갈등이란 말은 브로이어(Joseph Breuer)와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특히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과 자기보존 본능간의 갈등을 강조하였고, 현대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성취 욕구, 친교 욕구, 의존 동기에 따른 개인의 내면세계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심리적 갈등이론 중에는 장(場)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 쿠르트 레빈(Kurt Lewin)의 유형론이 널리 알려져 있다.⁸⁾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갈등을 사회적인 주요한 현상의 하나로 본다. 티니스(Tönnies), 짐멜(Simmel), 베버(Weber), 파크(R. Park) 등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짐멜은 “갈등이란 사회화 과정에 따른 한 형태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화,

5)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문학과비평사, 1990), p. 11.

6) 宋復, 『한국사회의 葛藤構造』(『現代文學』, 1990), p. 19.

7) 정량은, 『심리학통론』(서울: 범문사, 1984), p. 514.

8) 쿠르트 레빈,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박재호 역(서울: 민음사, 1987), pp. 309-317.

내부 분열과 외부논쟁은 궁극적으로 집단을 응집케 하는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⁹⁾고 말한다. 사회학적 차원에서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회귀한 가치나 재화(소득, 신분, 권력, 영토, 생태학적 위치의 점유) 등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학에서의 갈등 연구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조직과 조직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집단과 집단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이나 세력과의 갈등관계를 주로 탐구한다.

인류학자들은 갈등을 주로 문화적 산물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그 결과가 서로 다른 다차원의 사회적 과정으로 본다. 특히, 갈등과 변화는 사회화 과정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갈등은 사회시스템의 활동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결과로 인식한다. 인류학자들은 여러 가지 구조적 측면(가정 내, 지역사회 내, 지역사회 간)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¹⁰⁾

이에 비해, 문학적 갈등연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속에 언어로 형상화되어 있는 갈등 구조와 그 의미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서사문학이나 소설에서는 장르적 정체성 자체를 자아와 세계의 대결¹¹⁾이나 긴장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히, 갈등과 관련하여 소설의 플롯은 그 갈등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문학적 조직원리로서 갈등의 맺힘과 풀림의 상황을 예술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설 문학의 갈등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이론화나 분석 작업등 모든 면에서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갈등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 또한 사회학과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에 힘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미래에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이론적 틀과 연구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 갈등의 의미

사회학에서 갈등탐구의 역사는 마르크스와 짐멜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갈등을 사회체계에 불가피한 특성으로 보았다. 마르크스는 갈등의 분열성을 강조하여 갈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짐멜은 갈등의 통합적 결과를 강조하여 갈등의 형태와 결과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현대의 갈등이론은 마르크스와 짐멜의 갈등이론에 뿌리를 두고, 두 가지

9) G. Simmel, *Conflict: The Web Of Group Affiliations*(Glencoe, Ill.:Free Press, 1955), pp. 17-18.

10) 장동운, 『갈등관리』(서울: 무역경영사, 1997), pp. 19-25.

11)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서울:지식산업사, 1981), pp. 67-136.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지배적인 갈등론으로 발전해왔다. 하나는 변증법적 갈등론이며 다른 하나는 기능주의적 갈등론이다.¹²⁾

현대의 갈등이론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역시 갈등에 대한 정의 문제이다. 그만큼 갈등을 지칭하는 상이한 용어들도 다양하다. 예컨대, 적의, 전쟁, 경쟁, 적대, 긴장, 모순, 투쟁, 불합의, 불일치, 논쟁, 폭력, 반대, 혁명, 논의, 그 밖에도 무수한 용어들이 존재한다.

요즘의 갈등이론가들은 대체로 광의의 포괄적인 정의를 좋아하는 추세이다. 예컨대, 핑크(Clinton Fink)는 갈등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실체가 적어도 적대적인 심리적 관계의 한 형태에 의해서, 혹은 적어도 적대적인 상호작용의 한 형태에 의해서 연결된 어떤 사회적 상황 또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적대의 개념 속엔 ‘양립할 수 없는 목적들’, ‘상호배타적인 이익들’, ‘감정적 적의’, ‘불합의’, ‘폭력적 투쟁’, ‘규제된 상호간섭’ 등의 의미가 포함된다. 또 갈등의 다양한 유형을 내포하는 동시에 보다 한정된 정의를 발전시킨 윌리엄스(Robin Williams) 2세의 정의도 주목할 만하다. 즉, “갈등이란---- 한 파가 다른 파의 의지에 반하여 그 다른 파를 박탈하고 통제하고 손상시키며, 혹은 제거하려는 상호작용이다.”라고 말한다.¹³⁾

그러나 조나산 터너는 무엇이 갈등이며 무엇이 갈등이 아닌가를 확실히 하는 것과 갈등의 상이한 종류와 형태를 서로 구별하는 것에 갈등이론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된 욕구나 충동이 한 개체 안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 즉 힘의 세기가 같은 대립된 욕구가 공존하여 충돌함”,¹⁴⁾ 또는 ‘개인 내부에서 상반되는 두 개의 욕구 혹은 동기가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¹⁵⁾라고 말한다.

갈등 개념은 이처럼 학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갈등(葛藤, conflict)이란 대립이나 대치, 대조, 투쟁, 불화, 긴장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대결적인 인간관계의 한 역학구조를 보여주는 말이다.

특히 소설에서 갈등이란 욕망의 주체(작중인물)가 욕망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개인적, 사회적 긴장과 투쟁, 대결, 불화 등에 의해 생

12) J. H. 터너, 『사회학 이론의 구조』(개정판), 김진균 외 옮김(한길사, 1993), pp. 166-168.

13) Ibid., pp. 206-209.

14) 林承權, 『教育의 心理學的 理解』(學志社, 1993), p. 114.

15) 김정희 외, 『심리학의 이해』(學志社, 1993), pp. 345-346.

성되는 일종의 심리적 충돌과 괴리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의 갈등 구조 속에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과 동기들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2)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갈등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공유한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탈코트 파슨즈(Talcott Parsons)는 “사회적 계급과 계급갈등”이란 논문에서 갈등을 산업사회의 “고유한 풍토병”¹⁶⁾으로 규정하고 갈등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갈등을 자의식이 획득되는 메카니즘과 조직화된 사회의 구성요소로 본 사람도 있다. 즉, 파크(R.E. Park)는 버제스(E.W. Burgess)와 공저한 『사회과학입문』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서만 행동은 지각이 있게 되고 자의식을 갖게 된다. 오직 여기에 합리적 행위의 제 조건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긍정적이고 순기능적 측면을 높이 평가하였다.¹⁷⁾ 그리고 파크는 “갈등은 갈등집단들의 통합과 지배·복종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자의식의 획득 메카니즘으로, 집단에게는 사회적 통합과 화해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하였다.¹⁸⁾

정(Chung)과 메긴슨(Megginson)은 사회적 갈등의 하위 유형의 하나인 집단간 갈등을 중심으로 순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⁹⁾ 즉, 갈등은 실제 문제의 소재를 분명케 한다. 갈등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집단간 갈등은 그 집단을 결속시킨다. 갈등은 카타르시스로서의 역할을 한다. 갈등관리는 집단간 관계를 공고히 한다.

한편, 스키라기와 왈라스는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집단내 변화와 집단간 변화로 설명하였다.²⁰⁾ 갈등에 의한 집단 내 변화는, ㉠ 구성원들 간에 응집력이 증대된다.

16) Talcott Parsons, “Social Classes and Class Conflict”, *American Economic Review*, XXXIX(1949), pp.16-26. 루이스 A. 코저,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옮김(한길사, 1980), p. 27 재인용:여기서 코저는, “나는 계급갈등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고유한 풍토병이라고 믿는다.”라는 논문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17) Robert E. Park and Ernest W. Burgess,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ety』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1), p.578 ; 루이스 A. 코저, op.cit., p.23 재인용

18) Robert E. Park, “The Social Function of Wa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XLVI(1941), pp.551-570. ; 루이스 A. 코저, ibid. 재인용

19) Kae H. Chung and Leon C. Megginson, *Organizational Behavior:Developing Managerial Skill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1981), pp. 261-263; 장동운, 『갈등관리』, 1977, pp. 55-56. 에서 재인용.

20) Andrew P. Szilagyi and Marc J. Walla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Goodyear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 ㉔ 집단은 과업지향성을 띠게 된다. ㉕ 조직이 크게 강조된다. ㉖ 리더십은 독재성을 더 많이 띠게 된다. 갈등에 의한 집단간 변화는, ㉗ 적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확대된다. ㉘ 부정적 상동적 태도가 지배적이다. ㉙ 집단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든다. ㉚ 타집단 활동의 감시가 늘어난다 등이다.

3) 갈등의 동기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갈등의 특성은 역시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사회와 인간관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의 동기와 기능에 대한 논의도 시대와 논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로버트 노오드(Robert C. North)에 따르면, 갈등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동일한 대상과 공간, 자리 등을 차지하려고 할 때, 또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수단을 서로 가지려고 할 때 발생한다.²¹⁾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와 코저(Lewis Coser)는 갈등의 궁극적 원천이 불평등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조건 아래서 불평등은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그 사회체계의 조직을 변동시키면, 상단의 피드백 화살표는 체계의 재조직이 갈등의 발생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변증법적 가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체계는 언제나 내재적 갈등생성의 경향을 순환의 연쇄체계로 보여준다. 이처럼 변증법적 이론은 불평등이 자원의 재분배를 일으키는 격렬하고 폭력적인 갈등에 중점을 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²²⁾

한편, 심리학이나 교육심리학에서 갈등이론은 프로이트, 에드워드 머레이, 쿠르트 레빈 등의 주장이 잘 언급된다. 인간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조건은 첫째,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외부 압력이 있을 때, 둘째 외부의 요구와 자신의 소망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경쟁적인 요구가 있을 때, 셋째 종교나 정치, 이데올로기 등의 대립되는 가치관의 선택 문제 등을 만났을 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²³⁾고 주장하였다. 프로이트는 생물학적인 본능충동과 사회적 적응욕구가 충돌해서 문화를 생산하고, 이때 이드를 억압하여 에고, 수퍼 에고 등으로 흐르게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Publishing Company, Inc., 1990), pp. 361-362.; 장동운, *ibid.*, p.58-59 재인용.

2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ed. by David Sills(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p.226. ; 조남현, *한국소설-의 갈등*(문학과학비평사, 1990), p.17. 재인용.

22) J. H. 터너, *op.cit.*, p.211.

23) 김정희 외, 『심리학의 이해』, *op.cit.*, p. 346.

한다고 보았다. 에드워드 머레이(Edward J. Murray)는 「심리적 위상에서의 갈등론」에서 '동기부여적 갈등'을 강조하여 갈등이 노이로제 같은 개인의 정신병과 결혼 파탄, 학업좌절, 직업 실패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행위의 차원, 말의 차원, 사상적 대립의 차원, 감정적 차원 등으로 제시하였다.²⁴⁾

한편, 아나톨 라포포트(Anatol Rapoport)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자원분배, 권력투쟁, 자율성에의 욕구 등을 들었다. 그리고 갈등은 갈등 당사자(개인, 가족, 갱, 회사, 국가, 민족, 초국가적 동맹 등)의 성격, 이슈(권리, 특전, 자원, 정치권력 등), 갈등 해소 방법(설득, 토론, 물리적 폭력 등) 등 세 가지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4) 갈등의 유형

사회학에서는 갈등의 기본단위 설정(예를 들어, 개인, 집단, 조직, 계급, 국가, 공동체 등)에 합의할 수 없는 채 갈등 연구에 양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다렌도르프와 코저처럼 갈등의 기본 법칙을 추상적으로 도식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다른 하나는 갈등에 대한 특출한 조사 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몇몇 경험적인 분야(국제적, 대인적, 인종적, 계급적, 성별, 종교적, 윤리적, 조직적, 공동체적, 그리고 직업적 갈등 등)에서 특수 이론 등으로 나오고 있다.²⁵⁾

이러한 양극성을 인정하면서 이론가들은 그 나름의 갈등 법칙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기본단위를 추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다렌도르프의 저작은 조직의 상이한 다섯 수준인 역할, 집단, 부문, 사회 및 초사회적 단위 자체와 그들 사이의 갈등을 설정하고 있다. 갬팅(Johan Galtung) 등과 같은 학자들은 두 수준, 즉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 사이의 갈등과 각 수준 자체내의 갈등들을 구분하고 있다. 이 도식에서는 개인 내적 갈등과 개인들간의 갈등은 국가내의 갈등과 국가들간의 갈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⁶⁾

한편 데이비스 실리스(David Silis)가 편찬한 『사회과학대사전』에서는 갈등을 심리학적 측면, 정치학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 인류학적 측면, 이해의 측면, 법적 측면 등 발생상황 중심으로 여섯 가지로 유형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사회의 모

24)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op.cit., p. 220 ;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op.cit., pp.17-18. 재인용

25) J. H. 터너, op.cit., p.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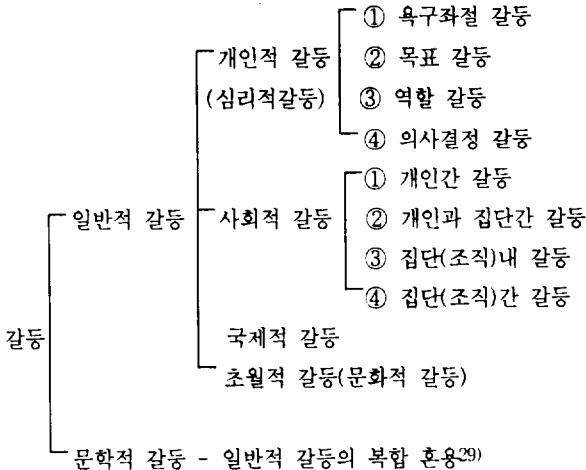
26) Ibid, p.210.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든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로버트 노오드(Robert C. North)는 「정치적 위상에서의 갈등론」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한 조직체 내에서의 개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⁷⁾

아나톨 라포포트(A. Rapoport)는 갈등유형을 몇 가지 차원에서 이분법적으로 설명gks다. 즉, 내인성 갈등과 외인성 갈등, 균형적 갈등과 균형과외적 갈등, 논쟁지향적 갈등과 구조지향적 갈등이 그것이다.²⁸⁾

갈등은 갈등을 바라보는 학자나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주로 개인적 갈등을 다루면서 그 하위 유형으로 욕구좌절에 의한 갈등, 목표 갈등, 역할 갈등, 의사결정 갈등 등으로 분류한다. 이에 비해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개인간의 갈등, 개인과 집단간의 갈등, 집단 내 갈등, 집단간 갈등 등으로 분류한다. 그밖에도 국제적 갈등, 문화적 혹은 초월적 갈등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갈등 유형을 수형도로 표상 하면 다음과 같다.



2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op.cit., p.226. ;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op.cit., p.17. 재인용

28) Anol Rapoport, Conflict in man-made environment, Penguin books, 1974, pp. 175-176. : '내인성 갈등'은 하위 존재들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때, 그들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상위 메카니즘이 있는 경우이다. '균형적 갈등'은 비슷한 처지나 수준에 놓여있는 개인이나 세력들이 보이는 갈등이다. '논쟁지향적 갈등'은 승자와 패자가 없이 균형유지적인 성격이 짙은 갈등을 말한다. '구조지향적 갈등'은 혁명처럼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소책이 없는 갈등을 말한다.

필자는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크게 '일반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으로 나누었다. 일반적 갈등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갈등의 양상들로서 비허구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화적 갈등은 허구적인 세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으로서 언어의 서술행위를 통해 형상화되는 비실제적인 갈등이다.

전자는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 국제적 갈등, 초월적 갈등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 학문 영역별로 그 특성을 연구한다. 예컨대, 개인적 갈등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연구대상이며, 사회적 갈등은 사회학 혹은 사회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등의 연구대상이 되고, 사회적 갈등의 일부와 국제적 갈등은 정치학의 연구대상이 되며, 초월적 갈등은 종교학이나 인류학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화적 갈등은 언어적 갈등이요 허구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일단 개연성을 전제로 성립된다. 또한 일반적 갈등에서 보여준 다양한 갈등의 양상과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원용한다. 문학이 본래 인간, 사회, 우주를 모방하여 재현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제재와 주제, 인물의 성격과 욕망, 신분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갈등유형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적 갈등 연구는 아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경영학 등의 인접학문에 힘입고 있는 실정이다.

(1) 개인적 갈등

우선, 개인적 갈등은 개인의 내면적인 심리상태나 성격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대상이 된다. 개인적 갈등은 다시 4가지 하위 유형인 욕구좌절에 의한 갈등(conflict by frustration), 목표 갈등(goal conflict), 역할 갈등(role conflict), 의사결정 갈등으로 나뉜다.

① 욕구좌절에 의한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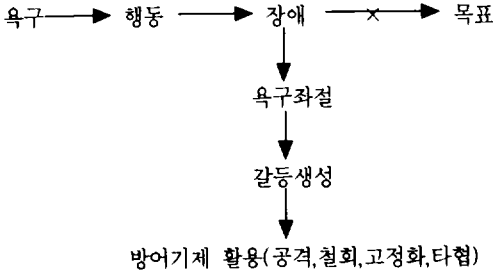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욕구가 장애물을 만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욕구좌절에 빠지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욕구가 좌절 되면 갈등의 주체는 공격, 철회, 고정화, 타협 등의 방어기제를 활용하여 좌절된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다.³⁰⁾ 욕구좌절에 의한 갈등의 생성과 그에 따른 반응양식인 방

29) 문화적 갈등을 유형화한 도표는 뒤의 문화적 갈등론을 참조할 것.

30) 유기현, 조직행동론(무역경영사, 1992), pp. 426-428. ; 장동운, op.cit., pp40-42. 재인용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어기제의 활용상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욕구좌절에 의한 갈등 생성도>³¹⁾

② 목표 갈등

목표 갈등은 주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목적이나 목표들 사이에서 쉽사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러한 목표 갈등론의 대표적 이론가는 쿠르트 레빈(Kurt Lewin)이다. 그는 갈등의 대상이 지닌 유인가(誘引價)의 작용방향에 따라 갈등 유형을 나눈다. 즉, 긍정적 가치에 이끌리는 힘인 <접근(approach)경향>과 부정적 가치에서 멀어지려는 힘인 <회피(avoidance)경향> 사이에서 주체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레빈은 이처럼 주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표가 긍정적 유인가와 부정적 유인가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상충되거나 양립할 수 없어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특별히 인지 부조화라고 불렀다. 그가 제시한 유형은 ㉔ 접근-접근형 갈등, ㉕ 회피-회피형 갈등, ㉖ 접근-회피형 갈등 등 세 가지인데,³²⁾ 여기에 머레이가 네 번째 갈등 유형인 ㉗ 이중 접근-회피형 갈등을 추가하였다.³³⁾

㉗ 접근-접근형 갈등(approach-approach conflict)

이 유형은 비슷한 정도의 긍정적인 힘을 가진 두 목표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에 생기는 갈등이다. 즉, 어떤 인물이 모두 취하고 싶은 두 가지 목표 앞

31) 이 도표는 필자가 선행연구자들의 그림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32) 쿠르트 레빈, *op.cit.*, pp.309-317. 김정희 외, *op.cit.*, pp.346-347.

33) Edward J. Murray, Conflict: Psychological Aspects,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op.cit.*, pp.221-222.

에서 선택의 문제로 방황할 때 생기는 갈등이 접근-접근형 갈등이다.

② 회피-회피형 갈등(avoidance-avoidance conflict)

이것은 비슷한 정도의 부정적인 힘을 가진 두 목표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예컨대, 어느 쪽도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한쪽은 선택해야 할 때 생기는 갈등이다.

③ 접근-회피형 갈등(approach-avoidance conflict)

이 유형은 어떤 하나의 목표가 긍정적 유인성과 부정적 유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갈등양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선택을 위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긍정적 가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가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④ 이중접근-회피 갈등(double approach-avoidance conflict)

이 유형은 두 개의 목표가 각기 모두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겪는 선택의 갈등이다. 각기 비슷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③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인물에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모순된 역할이나 기대가 주어질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한 인물에게 동시에 서로 다른 행동이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역할 갈등의 하위 유형에는 개인역할 갈등, 역할간 갈등, 전달자간 갈등, 전달자내 갈등 등이 있다.³⁴⁾

① 개인역할 갈등((personrole conflict)

이 갈등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건이 역할담당자의 욕구와 가치, 능력 등을 초월하거나 불일치 할 때 발생한다. 즉, 개인의 가치와 욕구가 역할 담당자의 기대와 상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② 역할간 갈등(interrole conflict)

이것은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행동하는 어떤 개인에게 다수의 목표와 역할이 주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이 때 그가 맡은 다른 역할에 대한 기대와 상충되는 역할의 기대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즉, 동일한 개인이 맡은 두 가지 이상의 역할 기대가 양립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34) Fremont E. Kast and James E. Rosenzweig,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rd ed.(McGraw-Hill, 1980), pp.276-278.; 장동운, 『갈등관리』, 1977, pp.44-46에서 재인용.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㉔ 전달자간 갈등(intersender conflict)

어떤 하나의 역할 전달자로부터 주어지는 두 가지 이상의 역할 기대가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역할 전달자로부터 주어지는 기대와 반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즉, 서로 다른 역할 담당자가 상충되는 기대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여러 전달자들이 어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려 할 때 그는 여러 쪽에서 압력을 받게 된다.

㉕ 전달자내 갈등(intrasender conflict)

어떤 동일한 역할 전달자가 서로 상충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역할기대를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곧 이러한 갈등은 어떤 전달자가 상충되는 지시를 전하거나 앞의 지시로 보아 불가능한 행동을 기대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역할갈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위는 4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역할갈등의 인식, 갈등적인 업무와 압력의 수용, 긴장을 묵인하는 능력, 성격구조 등이다. 역할갈등은 충분히 인식할수록, 압력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그 범위는 좁아진다. 또한 긴장을 묵인하는 능력이 많을수록 그 범위가 좁아지고, 인간 관계를 분명히 밝히려는 소심한 성격일수록 갈등수준은 커진다.³⁵⁾

④ 의사결정 갈등

의사결정 갈등은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확실성이라는 형태로 발생한다. 사이먼과 마치는 개인갈등의 원인을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³⁶⁾ 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㉖ 비수락성(수락불가능성:unacceptability) 갈등은 결정자가 대체안의 결과와 더 나은 안을 알고 있으나 어느 것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㉗ 비비교성(비교불가능성:incomparability) 갈등은 결정자가 각 대체안들의 결과를 두고 우수성을 판단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㉘ 불확실성(uncertainty)갈등은 결정자가 대체안의 선택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알지 못하여 겪는 갈등상황을 말한다.

35) 윤우근, 『조직론』(서울: 법문사, 1978), p.583; 이재규, 『조직갈등관리론』(서울:박영사, 1998), p.115에서 재인용.

36) James G. March and Herbert A. Simon, *Organizations*(John Wiley & Sons, Inc. 1958), pp.112-115.

(2) 사회적 갈등

사회적 갈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생성되는 갈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개인간, 집단과 개인간, 집단내, 집단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있다. 물론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이 늘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분리시켜 설명하기로 하겠다.

스토너는 갈등의 유형을 개인내 갈등, 개인간 갈등, 개인간 또는 집단간 갈등, 동일 조직내의 집단간 갈등, 조직내 갈등 등으로 분류하고, 서머혼 등은 개인적 갈등, 개인간 또는 개인내 갈등, 집단간 갈등, 조직간 갈등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³⁷⁾ 이상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개인내적 갈등을 제외한 사회적 갈등만을 범주화하면 개인간 갈등, 개인과 집단(조직)간 갈등, 집단(조직)내 갈등, 집단(조직)간 갈등 등 네 가지 유형이 된다.

① 개인간 갈등

개인간 갈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각자의 사고방식과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가치갈등이다. 개별적 자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개인간 갈등과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어떤 중심인물을 두고 수직적인 상하관계와 수평적인 동료관계 사이에서 생성되는 갈등이 있다. 한편 개인간 갈등은 실질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이 있는데 감정적 갈등은 잘 해결되지 않지만, 실질적 갈등은 제3자의 조정으로 해소 가능하다.³⁸⁾ 그리고 실질적 갈등은 대부분 감정적 갈등으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적 갈등은 순환성을 보여준다.

② 개인과 집단(조직)간 갈등

갈등유형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 수 있다. 즉, 순수한 개인과 집단(혹은 조직)과의 갈등, 집단(조직)내 개인과 집단(집단)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집단(조직)내 갈등

집단간 갈등은 동일 집단이나 동일 조직 내의 서로 다른 집단이나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집단이나 조직 차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갈등유형이다. 리터러(J.A. Litterer)는 집단간 갈등의 원인을 집단의 상호작용이

37) John R. Schermerhorn, James G. Hunt, and Richard N. Osborn, *Managing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John Wiley and Sons, Inc., 1985), pp.514-515.

38) Jerry C. Wofford et al., *Organizations in Action*(McGraw Hill, 1967), pp.230-241.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나 심리적 과정에서 찾는다. 즉, 다수의 목표가 상충되는 상황, 상충되는 수단이나 상충되는 자원분배, 지위의 불일치, 지각의 차이 등을 원인으로 삼았다. 그 외에도 기대역할의 차이, 준거행동의 차이, 시간적 안목 차이 등도 집단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동일한 회사에서 부서간에 벌이는 갈등이나 노동자 집단과 경영자 집단, 상사와 부하, 실무부서와 경리회계 부서가 갈등을 벌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집단(조직)내 갈등의 하위유형으로는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라인-스텝 갈등, 역할 갈등 등이 있다. 수직적 갈등은 동일 조직이나 동일 집단의 상사와 하급자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수평적 갈등은 동일 계층의 조직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라인-스텝 갈등은 동일 집단의 실무부서와 경리회계부서 간의 갈등 등이 예가 된다. 역할 갈등은 개인적 갈등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적 갈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역할 갈등은 양립될 수 없는 기대가 어떤 지위에 주어질 때 발생한다.

④ 집단(조직)간 갈등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나 조직간에 벌이는 갈등을 말한다. 서로 다른 회사간의 갈등이나 기업과 원료 공급업체와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국제적 갈등

국제적 갈등은 국제 사회의 단위에서 발생하는 갈등양상을 말한다. 요즘처럼,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바뀌면서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개인과 집단간, 집단간, 조직간 갈등을 가리킨다. 이때 유형구분의 양상은 사회적 갈등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범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초월적 갈등

초월적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과 초월적 힘을 지닌 어떤 관념이나 존재(신, 진리, 운명, 환경, 초자연적 힘 등)와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난다.

(5) 문학적 갈등

문학에서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형상화 된 허구적 이야기 속에서 갈등론을 전개시

킨다. 소설 작품 속에서 갈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탐구하여 유형화시키는 형태를 많이 쓴다. 이미 체계화 되어있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갈등이론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문학연구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문학적 갈등의 특수성을 놓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의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은 대략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두 개인, 즉 선인과 악인 사이의 대결(대부분 멜로 드라마), 둘째 개인과 사회 사이의 대립(사회소설의 성격을 띤 것), 셋째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사랑과 의무감 사이에서 혹은 신념과 절망감 사이에서 주인공이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 등이다.³⁹⁾

한편, 근대 이후의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양상은 대개,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 사이의 대립, 낡은 것과 새 것 사이의 마찰,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거리감,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 사이의 대립, 전통적(토속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사이의 충돌, 개성적인 삶과 상식적인 삶 사이의 괴리감, 한 개인의 인간 조건 등이다.⁴⁰⁾

한편 현길언은 그의 『소설 쓰기의 이론과 실제』에서 소설의 갈등 양상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즉 존재론적 갈등, 사회적 갈등, 자아와 자아의 갈등으로 나누고 이 세 측면은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 넘나들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별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인다. 첫째, 존재론적 갈등은 인간과 신, 인간과 죽음, 인간과 운명, 인간과 본성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 갈등은 인간과 사회구조적 모순과의 갈등 양상을 말한다. 즉, 가난, 제도, 폭력 등과 걸어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은폐된 제도적 폭력, 경제적 불평등, 반문화적 퇴폐 등도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보았다. 셋째, 자아와 자아의 갈등은 주로 자의식에 의한 인물 내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뜻한다.⁴¹⁾

따라서 소설에서 다루는 갈등양상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내적 자아의 갈등이 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개인의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체적 자아와 집단적 자아, 개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형이상학적 자아와 형이하학적 자아, 그리고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에서 발생한다. 내적 갈등은 지금까지 주로 정신분석

39) Joseph T. Shipley, 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Littlefield, Adams & co.,1972), p.75.;曹南鉉, 『小説原論』, p.194에서 재인용.

40) 曹南鉉, 『小説原論』, op.cit., p.195.

41) 현길언,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한길사, 1994), pp.227-230.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학과 심리학 등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둘째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은 대인 외적 갈등 혹은 대인(對人)갈등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대인 외적 갈등은 주로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등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대인갈등은 대체로 개인(주체)과 개인(타자)이 벌이는 갈등 양상으로서 가장 작은 사회적 갈등의 기본 단위로 볼 수 있다.

셋째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역시 외적 갈등의 양상으로서 개인과 제도, 개인과 집단(단체), 개인과 조직(사회) 간의 갈등 양상으로 드러난다.

넷째 집단 내 갈등은 집단 속에서의 역할과 욕망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집단 혹은 조직 내의 지위 간, 역할 간, 임무 사이에서 욕망이 충돌할 때 집단 내 갈등을 발생하기 마련이다. 집단과 조직 속에서의 내적 구성요소 간의 욕망 충돌을 뜻한다.

다섯째 집단과 집단의 갈등은 역시 사회적 갈등의 일종으로서 조직과 조직, 집단과 집단간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 양상에는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 계급과 계급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남아프리카의 인종갈등, 중국의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갈등 등이 그런 경우가 된다.

여섯째, 국제적 갈등은 사회적 갈등의 유형구분과 비슷하나 사회 단위에서 국제 사회의 단위로 확장된다. 따라서 한 국가나 민족의 개인과 타 국가나 민족의 개인간의 갈등, 한 국가나 민족의 개인과 타 국가나 민족, 또는 그들의 집단이나 조직간의 갈등, 한 국가나 민족의 집단이나 조직과 타 국가나 민족의 집단이나 조직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끝으로, 인간과 초월적 존재와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초월적 힘을 지닌 관념(신, 진리, 운명, 환경, 초자연적 힘 등), 혹은 집단과 초월적 힘을 지닌 존재 사이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문학적 갈등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갈등 유형	유형별 사례
개인적 갈 등	개인 내적 갈등 (심리적 갈등)	개인의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간 개인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간 개체적 자아와 집단적 자아간 개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간 형이상학적 자아와 형이하학적 자아간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간
사회적 갈 등	개인과 개인간 갈등	어떤 개인과 타인과의 갈등
	개인과 집단(조직)간 갈등	개인과 집단간, 개인과 조직간
	집단(조직)내 갈등	어떤 집단(조직)내 구성요소간
	집단(조직)과 집단(조직)갈등	어느 집단(조직)과 타 집단(조직)간 갈등
국제적 갈 등	개인과 개인간 갈등	어느 개인과 타국 개인간의 갈등
	개인과 집단(조직)갈등	어떤 개인과 타국 집단(조직)과의 갈등
	집단(조직)내 갈등	어떤 집단(조직)내 구성요소간
	집단(조직)과 집단(조직)갈등	어떤 집단(조직)과 타국 집단(조직)과의 갈등
초월적 갈 등	개인과 초월적 힘간 갈등	개인과 신, 종교, 운명, 대자연 등과의 갈등
	집단과 초월적 힘간 갈등	집단(조직)과 신, 종교, 운명, 대자연과의 갈등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설에서의 갈등은 플롯의 조직원리와 무관하지 않다. 소설의 플롯은 단순한 이야기 짜기가 아니라, 감동적이고 예술적인 이야기의 조직 원리라는 점에서 갈등구조의 설정과 긴밀히 관계된다. 소설의 갈등구조는 그런 감동적인 예술적 이야기 짜기의 소산으로서 이야기의 재미와 서스펜스, 긴장감, 아이러니 등의 미적 체험을 맛보게 하는 핵심 원리가 된다. 개인과 인종간 대결 뿐만 아니라,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작중인물의 삶을 형상화하며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양상을 드러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⁴²⁾

4. 욕망과 갈등 분석법

1) 욕망 대립의 체계도

작중인물들이 벌이는 갈등은 그들의 욕망 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 결

42) 한용환, 『소설학 사전(고려원, 1992), p.17.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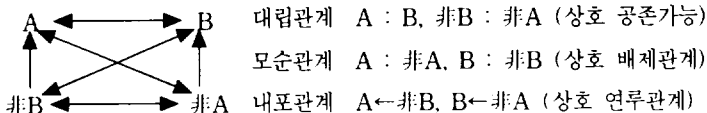
과이다.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대립과 갈등의 심리적 역학관계가 생성되고, 소설의 플롯 구조는 욕망과 갈등의 전개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적 장치나 기법, 또는 의미화의 한 방법으로 성립된다.

이처럼, 소설의 갈등은 작중인물의 욕망 실현의 방법이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욕망과 갈등의 유기적인 탐구 없이 수행되는 갈등 그 자체만의 연구는 구체성과 역동성을 획득하기 힘들다. 앞서의 지적처럼 욕망과 갈등은 스토리와 플롯의 관계처럼 구조적 혈연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전제하지 않은 갈등연구나 갈등을 전제하지 않은 욕망 연구가 힘을 잃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이제, 그레마스⁴³⁾가 제의한 이항대립구조(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기본 틀을 활용하여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갈등 구조는 반드시 갈등의 주체와 대립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외적 갈등은 주체와 타자와의 갈등이므로 갈등구조는 주체와 타자(대립자, 반대자, 방해자)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내적 갈등은 주체 내부의 자아간 갈등이므로 갈등 대상이 외적 자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갈등의 실체는 인물 상호간에 벌이는 욕망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난다. 앞에서의 언급처럼 욕망의 동기와 전개과정, 욕망의 결과 등이 갈등구조의 실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갈등구조는 소설 속에서 대립하는 인물 상호간에 벌이는 욕망의 대결양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이야기의 주체와 대립자간의 관계를 대립과 모순, 내포의 3가지 관계로 보여주고 있다. 대립관계는 주체의 욕망목표와 대립자의 욕망목표간의 관계, 주체의 중개자와 대립자의 중개자와의 관계를 반대(反對)관계로 설정한다. 모순관계는 주체의 욕망목표와 대립자의 욕망목표간의 관계를 부정(否定)관계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반대관계는 상호 공존 가능하지만, 부정관계는 상호 배제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내포(內包)관계는 의미상의 내포관계 혹은 연루관계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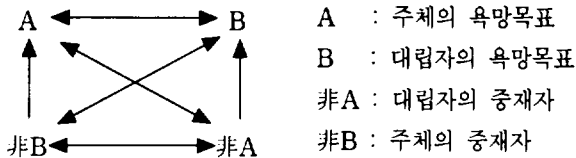
43) A.J.Greimas, Du Sens-Essais Semiotiques(Edition du Seuil, 1970), pp.135-155.

이 그림을 욕망과 갈등구조로 다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와 B는 갈등(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와 대립자(반주체)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자신의 욕망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A는 주체의 욕망 목표(대상)로, B는 대립자(반주체, 방해자)의 욕망 목표로, 그리고 非B는 주체의 욕망목표(대상)로 인도하는 중재자로, 非A는 대립자의 욕망 목표(대상)로 인도하는 중재자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야기 전체구조의 관점에서 변증법적 발전에 이르게 하는 중재자는 非B가 된다.

욕망과 갈등 상황이 한 인물의 두 자아 사이에서 발생할 때는 긍정적인 자아를 왼쪽 항에 배열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오른쪽에 배열한다. 예를 들어, A에 내적 자아의 욕망목표가, B에 외적 자아의 욕망목표가 연결되어 있다면 非B에는 내적 자아의 욕망목표에 이르게 하는 중재자가 놓이고, 非A에는 외적 자아의 욕망목표에 이르게 하는 중재자가 놓이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은 '욕망대립의 사각형', 혹은 '욕망갈등도'가 성립된다.



2) 욕망과 갈등의 통합적 분석원리

이제,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현대소설의 욕망 대립 구조의 분석 틀로 활용하기 위해 작품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과정과 절차를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욕망갈등도의 사각형 안에서 긍정적인 축과 부정적인 축이 구분되는데 긍정적인 축이 관습상 왼쪽에 놓인다.

② 이 사각형이 보여주는 역학관계는 대립관계, 모순관계, 내포관계의 세 축을 기본으로 하여 구축되는 이항대립의 변증법적 욕망 구조로 나타난다.

주체의 욕망목표(대상)와 대립자의 욕망목표(대상), 주체의 욕망실현을 돕는 중재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자와 대립자의 욕망실현을 돕는 중개자는 각각 대립관계(반대관계)를 보여준다.

한편, 주체의 욕망목표와 대립자의 중개자, 대립자의 욕망목표와 주체의 중개자 사이에는 각각 모순관계(부정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주체의 욕망목표와 그의 중개자, 대립자의 욕망목표와 그의 중개자는 각각 내포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중개자는 욕망의 추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략적 동기나 협조자, 또는 유인자가 되어줌으로써 중개, 혹은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이항대립항의 설정시 상부항은 주체와 대립자의 욕망목표를 위치시키고, 하부항은 그들과 의미상 함의관계(내포관계)에 있는 중개자를 쓴다. 이때, 대립자란 주체의 욕망 파트너 즉, 반동자나 방해자를 가리킨다.

외적 갈등인 경우는 주체와 대립자의 욕망 목표를 상부항에 위치시키는데 주체적 인물은 왼쪽 상부항에, 대립적(반동적) 인물은 오른쪽 상부항에 위치시킨다. 내적 갈등인 경우는 대립관계에 놓인 두 자아의 욕망목표를 상부항에 놓되 긍정적인 자아를 왼쪽 항에, 부정적인 자아를 오른쪽 항에 위치시킨다.

따라서 왼쪽 하부항에는 긍정적 자아의 욕망실현을 돕는 중개자를 놓고 오른쪽 하부항에는 부정적 자아의 욕망실현을 돕는 중개자를 놓는다.

④ 욕망의 주체와 대립자의 갈등은 중개자(중재자, mediator)의 역할에 의해 화해나 해결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중재자(仲裁者)의 탐색은 신화와 민담에서 레비스트로스, 그레마스, 마란다(E.K.) & P. Maranda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중재자는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간에 갈등을 해결에 이르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그레마스는 기호학의 사각형에서 하위 대립항은 각각 상위 대립항의 중재 과정이 되는데, 가장 적절한 중재항은 긍정적인 축의 하위 대립항이 된다.

그러나 중재자는 반드시 인물일 필요는 없다. 라이트 모티브나 사건, 행위, 심리적 상황, 꿈, 환청 등 다양한 소도구들도 중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욕망갈등도의 해석은 $\langle A \rightarrow \neg A \rightarrow B \rightarrow \neg B \rightarrow A \rangle$ 의 흐름을 따라가며 진행된다. 따라서 욕망과 갈등의 의미는 이항대립의 논리를 따라 전개되고 그 결과는 변증법적 통합의 논리를 통해 화해 또는 해결(종합)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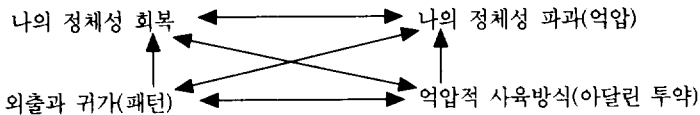
⑥ 그러나 모든 소설의 욕망과 갈등논리가 이항대립의 도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소설에서 욕망과 갈등 양상은 이항 대립뿐만 아니라 욕망의 삼항 대립을 비롯한 다항 대립의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욕망 대

립 도식을 필요한 만큼 연이어 그려놓고 욕망과 갈등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⑦ 이러한 욕망갈등도는 결국,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설명하고 나아가 주제를 해석해 주는 하나의 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틀로 하여 작품분석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이상의 「날개」를 텍스트로 하여 욕망과 갈등 상황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주인물 '나'를 긍정적 주체의 욕망자로, '아내'를 나의 욕망과 갈등하는 부정적 욕망의 대립자로 설정하고, 주체의 욕망목표를 '나의 정체성 회복', 아내의 욕망 목표를 '나의 정체성 파괴(억압)'로 설정하면 이 소설은 정확한 이항대립의 욕망과 갈등 도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외출과 귀가(패턴)를 주체의 중재자로, 억압적 사육(아달린 투약)을 대립자의 중재자로 설정하면 이 소설의 욕망 대립 도식은 변증법적 의미 생성의 통로를 따라 가며 설명할 수 있다.



< 「날개」의 욕망갈등도 >

이 작품은 주체와 대립자의 욕망과 갈등관계가 정확한 이항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주체인 '나'의 욕망목표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개인 혹은 민족)을 회복하는 일이며, 대립자인 아내의 욕망목표는 주인공 '나'의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체인 나는 중재자인 외출과 귀가의 패턴에 힘입어, 대립자인 아내는 억압적 사육 방식(아달린 투약)을 중재자로 하여 그들의 욕망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체의 욕망목표인 '나의 정체성 회복'과 대립자의 중재자인 '억압적 사육 방식(아달린 투약)', 대립자의 욕망목표인 '나의 정체성 파괴'와 주체의 욕망실현을 돕는 중재자인 '외출과 귀가(패턴)'는 각기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주체의 욕망목표(나의 정체성 회복)와 외출과 귀가의 패턴, 대립자의 욕망목표(나의 정체성 파괴)와 '억압적 사육방식'은 각기 내포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 해석을 끌어낼 수 있다. 즉, 주체의 욕망목표인 '나의 정체성 회복'과 모순관계에 놓여있는 대립자의 비인간적 '억압적 사육방식'(중재자)은 '나의 정체성 파괴'를 지향하는 대립자의 욕망목표와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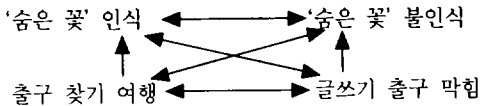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자의 욕망목표는 주체의 '외출과 귀가의 패턴'을 통해서(중개자) 그 모순이 폭로됨으로써 주체는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욕망목표인 '나의 정체성 회복'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나와 대립관계에 있는 아내의 욕망목표인 '나의 정체성 파괴'욕구는 아달린 투약 등과 같은 비인간적 억압적 사유방식을 통해 기도되지만, 주체는 '외출과 귀가'의 패턴을 중개자로 삼아 대립자의 음모와 모순을 깨닫고 주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의 주체(나)는 주어진 대립적 현실 속에서 출발하여 그 현실 속의 모순을 깨닫고 지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변증법적 의미생성체계를 보여준다.

양귀자의 『숨은 꽃』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은 글쓰기의 출구가 막힌 한 여류 소설가가 그 출구를 찾기 위해 김제 귀신사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중 액자 형태의 여로형 소설구조로 짜여져 있다. 그곳에서 10여 년 전에 면식이 있던 악명 높던 김종구라는 인물과 뜻밖의 재회를 하고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모두들 자기 나름의 '숨은 꽃'을 찾아 맹렬하게 살고 있던 김종구와 몇몇 과거 지인들(칼릴 지브란, 뚝부기 시인, 소설을 쓰는 외과수술의)을 회상하며 '숨은 꽃'의 참 의미를 깨달아 소설 쓰기의 출구를 찾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숨은 꽃 인식'과 '숨은 꽃 불인식'을 대립적 의미의 상위항에 설정하고, 하위항에는 '출구 찾기 여행'과 '글쓰기 출구 막힘'을 역시 대립적인 중개자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은 욕망과 갈등도가 떠오른다.



< 『숨은 꽃』의 욕망갈등도 >

이 도표에 따르면, '숨은 꽃 인식'과 '숨은 꽃 불인식', '출구 찾기 여행'과 '글쓰기 출구 막힘'은 각기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숨은 꽃 인식'과 '글쓰기의 출구 막힘', '숨은 꽃 불인식'과 '출구 찾기 여행'은 각기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숨은 꽃 인식'과 '출구 찾기 여행', '숨은 꽃 불인식'과 '글쓰기 출구 막힘'은 내포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을 욕망과 갈등도의 해석논리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글쓰기의 출구가 막힌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글쓰기의 출구 막힘’은 ‘숨은 꽃 인식’과는 모순관계에 놓여있고 오히려 ‘숨은 꽃의 불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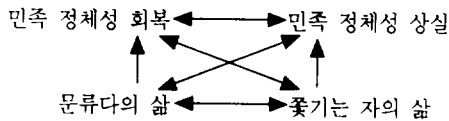
그러나 작가는 ‘숨은 꽃의 불인식’과 모순관계에 있는 ‘글쓰기의 출구 찾기 여행’을 통해서 ‘숨은 꽃’의 정체를 인식하고 돌아옴으로써 ‘글쓰기의 출구 막힘’이라는 모순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완성된다.

결국, 작가가 찾는 ‘숨은 꽃’의 정체는 소설 속에서 ‘우담바라화’나 ‘만년과’ 등의 불교상징어를 빌어 암시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르고자 하는 영원한 글쓰기의 참 목적이나 참 대상으로서의 진리의 모습, 혹은 참다운 글쓰기의 과정이나 글쓰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반성적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이처럼 글쓰기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픽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소설가가 주인공로 등장하고 예술 행위와 작가의 예술관에 대한 탐색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 소설로도 읽을 수 있다.

윤후명의 「하얀 배」는 조국에서 정보기관에게 쫓기는 삶으로 인해 민족 정체성(아이덴티티)을 상실한 주인공이 키르키즈스탄에 살고 있는 문류다의 삶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이다. 일종의 여로형 소설로서 단일 액자 형태의 틀에 의해 형상화된다.

천산, 만년설, 하얀 배로 연결되는 상징 장치가 숭고한 백색의 미학으로 형상화되면서 백의민족의 후예인 문류다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강화한다. 앞에서 언급한 욕망대립도를 활용하여 표상 하면 다음과 같다.



< 「하얀 배」의 욕망갈등도 >

이 소설의 욕망갈등도는 첫째, ‘민족 정체성 회복’과 ‘민족 정체성 상실’, ‘문류다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의 삶'과 '쫓기는 자의 삶' 사이의 대립적 의미 관계, 둘째 '민족 정체성 회복'과 '쫓기는 자의 삶', '민족 정체성 상실'과 '문류다의 삶' 사이의 모순관계, 셋째 '민족 정체성 회복'과 '문류다의 삶', '민족 정체성 상실'과 '쫓기는 자의 삶' 사이의 내포관계의 틀 속에서 설명된다.

이 작품의 욕망과 갈등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민족 정체성 확립과 모순관계에 있는 쫓기는 자의 삶은 주인공의 민족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인공의 이러한 민족 정체성 상실 문제는 문류다를 만나 할아버지의 나라로의 귀환을 갈망하는 그녀의 처절한 삶을 중개자로 하여 잃었던 민족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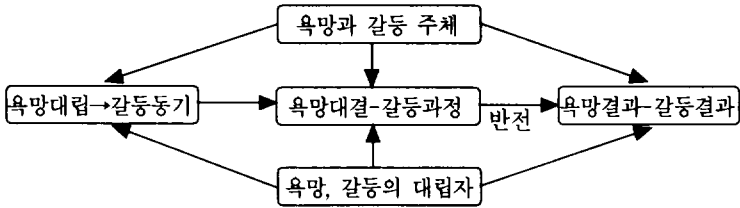
이렇게 욕망갈등의 구조를 해명하고 나면, 그 해석 내용이 곧 주제의 해석이 되고 한 편의 소설 속에서 탄생되는 의미작용의 기본구조를 확인하는 계기도 된다.

3) 욕망과 갈등의 총체적 분석

일반적으로 욕망과 갈등의 총체적 분석은 주제해석의 단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욕망과 갈등의 총체적 분석은 욕망과 갈등의 주체와 대상을 비롯하여, 욕망과 갈등의 원인, 욕망과 갈등의 전개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욕망과 갈등의 전모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소설에서 욕망과 갈등분석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의 역학구조와 그 전개과정을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에서 갈등은 욕망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고 욕망의 관계방식이 곧 갈등구조라는 점에서 갈등과 욕망은 친족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총체적인 욕망과 갈등구조의 분석은 욕망구조와 갈등구조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욕망구조와의 역동적인 인과관계를 무시한 단순한 갈등연구는 무의미하다는 뜻도 된다. 그러한 통합적인 논리 속에만 인물 상호간의 욕망관계와 갈등관계가 전모를 드러내게 된다. 욕망을 동기로 하여 갈등의 원인이 생성되고, 욕망의 대립적 관계를 동기로 하여 갈등의 전개과정이 형성된다. 또 욕망의 대립과정을 원인으로 하여 갈등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성은 결말부에 이르러 반전구조에 의해 아이러니의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반전구조는 이야기의 인과성을 뒤집는 역동적인 서사적 계기로 작용한다. 이상의 설명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결론

이 논문은 소설의 갈등연구를 작중인물의 욕망과 결부시켜 유기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갈등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제한적 탐색에 머물렀다면, 필자는 갈등과 욕망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역동 체계로 보고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욕망과 갈등의 개념 정리에서 시작하여 기존의 욕망연구 방법과 그를 보완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제시, 종합적 관점에서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유형의 정리 과정을 거친 뒤, 욕망과 갈등을 유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종합적 틀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갈등을 주체와 대립자의 욕망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역동적인 역학관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 중개자의 설정에 한계성이 있음을 밝히고, 중개자의 기능과 범주를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협조자로 설정함으로써 소설 분석에의 적용 가능성을 넓혔다.

주체의 욕망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유형은 기존의 유형론에 국제적 갈등을 첨가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된 바 있는 갈등 유형 등을 종합하여 문학적 갈등연구에 적용 가능한 유형으로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 문학에서 적용 가능한 갈등 유형은 개인적(심리적) 갈등, 사회적 갈등, 국제적 갈등, 초월적 갈등 등으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은 그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욕망과 갈등의 유기적 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른바 그레마스의 '의미작용의 기본구조'의 틀을 욕망과 갈등의 분석체계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었다. 그 결과 상위항에는 주체와 대립자의 욕망 목표를 위치시키고, 하위항에는 각기 주

작중 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체와 대립자의 중재자를 위치키는 방법으로 욕망과 갈등구조를 추출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 방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 이상의 「날개」, 윤후명의 「하얀 배」, 양귀자의 「숨은 꽃」 등을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 김정희 외, 『심리학의 이해』, 學志社, 1993.
宋復, 『한국사회의 葛藤構造』, 現代文學, 1990.
윤우근, 『조직론』, 법문사, 1978.
이재규, 『조직갈등관리론』, 박영사, 1998.
林承權, 『教育의 心理學的 理解』, 學志社, 1993.
장동운, 『갈등관리』, 무역경영사, 1997.
정량은, 『심리학통론』, 범문사, 1984.
曹南鉉, 『小說原論』, 고려원, 1983.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1.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현길언,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1994.
루이스 A. 코저, 박재환 옮김, 『갈등의 사회적 기능』, 1980.
르네 지라르, 金允植역, 『小說의 理論』, 삼영사, 1979.
J.H 터너, 김진균 외 옮김, 『사회학 이론의 구조(개정판)』, 한길사, 1993.
쿠르트 레빈, 박재호 역, 『사회과학에서의 場理論』, 민음사, 1987.
Chung, Kae H. and Megginson, Leon C, *Organizational Behavior : Developing Managerial Skill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1.
Szilagyi, Andrew P. and Wallace, Marc J,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Goodyear Publishing Company, Inc., 199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Silis, David.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Kast, Fremont E. and Rosenzweig, James 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rd ed. McGraw-Hill, 1980.

Schermerhorn, John R. Hunt, James G. and Osborn, Richard N. *Managing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John Wiley and Sons, Inc., 1985.

March, James G. and Simon, Herbert A. *Oreganizations*. John Wiley & Sons, Inc, 1958.

Wofford, Jerry C. et al. *Organizations in Action*. McGraw Hill, 1967.

ShIPLEY, Joseph T. *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 Littlefield, Adams & co, 1972.

Greimas, A.J. *Du Sens-Essais Semiotiques*. Edition du Seuil, 1970.

Simmel, G. Conflict: *The Web Of Group Affiliations*. Glencoe,III: Free Press, 1955.